

# 컨테이너선 신조가 1TEU당 1만3,000달러로 상승

## 대형컨테이너선 가격상승 중형선 가격에도 영향

대형컨테이너선의 신조선가가 최근에 상승하여 1TEU당 1만3,000달러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대형컨테이너선의 신조선가는 선대대형화로 인한 발주량 증가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유럽선주들의 신조발주가 두드러지면서 9,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신조선가는 1TEU당 1만3,000달러로 상승했다.

더구나, 앞으로 대형컨테이너선의 신조선가는 조선소의 독크사정 등으로 더 상승하고 파나막스급 이하의 신조선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컨테이너선의 신조선가는 지난해 가을 이후 운임 하락과 용선료 시황의 하락의 여파로 전반적으로 금년들어 약보합세를 보여왔다.

지난 2005년 10월 독일선주 콘티사가 9,700TEU급 초대형컨테이너선 4척을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 2008-2009년 납기에정으로 발주했는데, 이때 선가는 1TEU당 약 1만3,900달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전반적인 시황이 하락하면서 선가도 덩달아 하락했다.

시장관계자에 의하면 최근에 9,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신조가격이 상승한 것은 프랑스의 CMA-CGM사를 비롯하여 스위스의 MSC사, 그리고 독일선주들의 신조상담이 풀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유럽선주들에 의한 최근의 메가컨테이너선 발주는 국제해사기구(IMO)가 10월8일 이후 준공되는 신조선에 연료탱크 이중화를 강제하는 새로운 규

칙의 발효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장관계자들은 이 규칙이 발효되면 연료탱크가 큰 컨테이너선은 선가를 포함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년 10월 이후의 조선용 강재가격은 철광석 가격의 인상 등으로 철강회사측이 재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강재가격 인상시 신조선가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중국 전항만 1-4월 컨테이너취급량 22% 증가

올들어 중국의 항만에서 처리된 컨테이너화물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교통부가 정리한 항만통계에 따르면, 올 1-4월 중국의 전체 항만에서 처리된 컨테이너취급량은 2,694만TEU로 전년동기에 비해 22% 증가했다.

항만별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을 보면, 상해항이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637만TEU로 가장 많은 물량을 처리했으며, 이어 심천항은 12% 증가한 533만TEU, 청도항은 19% 증가한 236만TEU, 영파항은 38% 증가한 203만TEU, 광주항은 53% 증가한 100만TEU를 각각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집중된 광주나 천연의 양항으로서 개발이 진행되는 영파항은 컨테이너취급량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금년 4월 한달간 중국 전항만 컨테이너취급량은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한 736만4,900TEU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주요 연해항은 21% 증가한 690만3,800TEU, 주요 하천항은 30% 증가한 48만1,100TEU를 각각 처리했다.

항만별로는 상해항이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한 178만TEU를 처리했으며, 이어 심천항이 19% 증가한 139만TEU를 기록했다.